

★ The Hope Report 17호 [2013. 9]

덴마크와 독일, 유럽 평생학습 현장에서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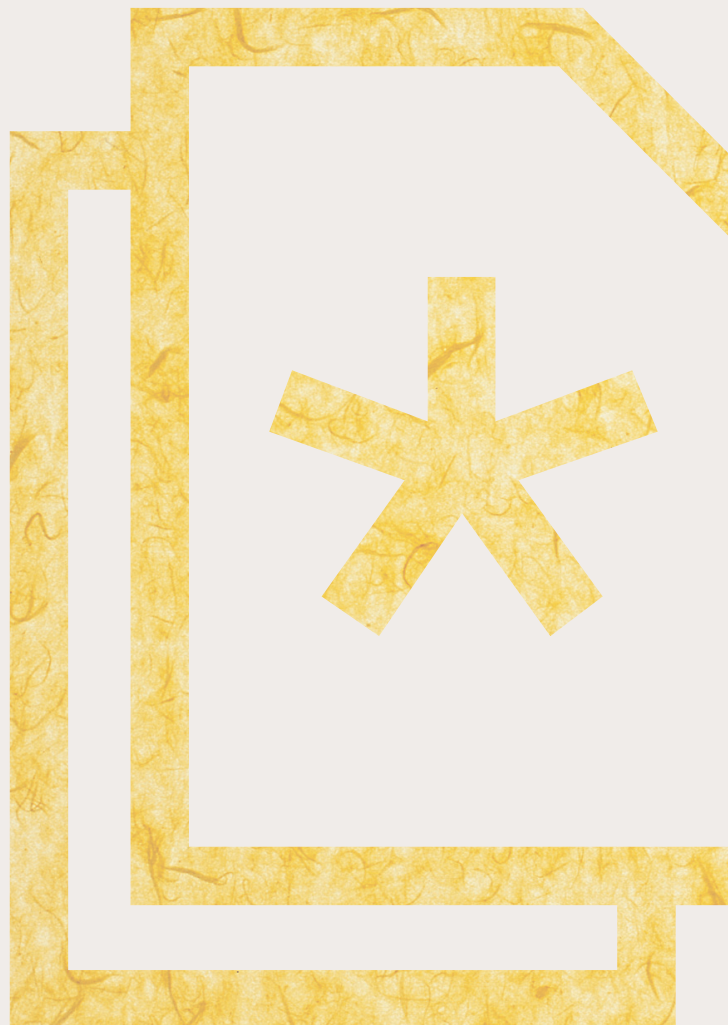
목차

1. 휴먼라이브러리
2. 덴마크성인교육협회
3. 독일 학습하는 지역들 - 오펜바흐 시민대학
4. 본 시민대학
5.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작성 | 교육센터

남경아 센터장 | msnka@makehope.org

- 이 리포트는 (주)공공연수에서 주관하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최한 '평생교육 심층탐방 유럽연수(2013년 6월22일~30일, 덴마크, 독일)'에 참가한 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개요

“마을만들기는 곧 사람 만들기이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바꾼다.”

지방자치 시대, 지역 주민 교육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은 건강한 시민의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건강한 시민의식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2000년 평생교육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평생학습도시 단체장의 마인드 제고와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 2013년에는 OECD 회원국 중 평생 학습 참여율이 최상위권인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해외연수에 동행하여 덴마크와 독일의 성인 교육의 발전과정, 다양한 학습자원 간 네트워킹, 사회통합정책으로써 성인교육 프로그램 등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정리한 글이다.

오랜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와 독일의 성인교육을 7박9일이라는 짧은 연수를 통해 정리한다는 것은 ‘코끼리 다리만지기’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는 이런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인터뷰 녹취록, 발표자료, 현지에서 가지고 온 방대한 양의 자료들,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번역, 분석해 보충했음을 밝힌다.

사회복지의 나라 덴마크. 민주시민교육의 나라 독일. 우리가 선진국이라 칭하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단연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삶의 지표에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두 나라 성인교육의 특징은 다양성, 개방성, 통합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오랜 역사동안 숏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인교육 제도를 만들어 낸 그들의 노력과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성인교육, 평생학습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 시사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더 휴먼라이브러리 (The Human Library Organization)

편견을 없애는 살아있는 도서관, 휴먼라이브러리

국내에 이미 '리빙 라이브러리'로 소개된 바 있는 '휴먼라이브러리'는 2000년 덴마크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Ronni Abergel)에 의해 창안되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책이 되어 대출되는 도서관인데, 대화를 통해 타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서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휴먼라이브러리 방문자들은 책을 대출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람'을 대출하게 되는데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사람' 책의 인생과 삶,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단순하게' '간단명료하게' '현실적으로'를 모토로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한 '방법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훌륭한 민주주의 배움의 장터(Learning Platform)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내를 비롯하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을 다루는 주요 방법으로 널리 응용되고 있다.

비폭력 청소년 운동에서 시작

199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 십대 청소년이 밤에 칼에 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로니 에버겔(Ronni Abergel), 대니 에버겔(Dany Abergel), 아스마 모우나 (Asma Mouna), 크리스토퍼 에릭슨(Christoffer Erichsen), 토마스 베르텔슨(Thomas Bertelsen)이라는 코펜하겐 출신 5명의 젊은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비폭력 청소년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수단을 맞아준 휴먼라이브러리 관계자들

이후 이 청년들은 ‘폭력을 중단시키자 – Stop the Violence’라는 청소년조직을 만들고, 폭력에 반대하는 젊은 덴마크 청소년들을 모아 또래집단 교육을 실시하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결집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000년에 그들은 로스킬드 축제(Roskilde Festival)에서 ‘Stop the Violence’ 활동을 기획하였다. 축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에 초점을 둔 사람들 간에 대화와 관계를 형성하는 이벤트를 개최했고, 이 행사에서 지금의 휴먼라이브러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방법론 그 이상의 의미, 휴먼라이브러리가 추구하는 것은?

휴먼라이브러리의 창립자인 로니 에버겔(Ronni Abergel)은 “모든 사회에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누군가를 알고 이해하게 되면 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방법의 하나로 서고에 있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람, 즉 살아있는 책인 사람들의 스토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간단한 논리를 이용했다.

로니는 휴먼라이브러리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불필요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고, 타인에 대한 다양성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회 구성원 누구나 본인이 속한 배경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젊은이들이 직업선택과 관련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
- 학습, 공부가 책으로만 배우고 학문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력자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줌

휴먼라이브러리 Worldwide

휴먼라이브러리 창설자 중 한 명인 로니 에버겔(Ronni Abergel)은 첫 번째 휴먼라이브러리 이벤트 이후, 휴먼라이브러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로니는 각 나라의 다양한 NGO, 공공기관들을 만나 휴먼라이브러리를 소개하고, 휴먼라이브러리 이벤트 론칭을 도왔다.

휴먼라이브러리를 확산하는 데 가장 큰 조력자가 된 파트너는 바로 유럽위원회다. 유럽위원회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휴먼라이브러리가 전 세계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휴먼라이브러리의 매뉴얼 제작에서부터 다양한 국가의 이벤트 론칭을 위한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휴먼라이브러리의 발전과 전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교육, 축제, 북 페어를 통해서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고려대학교에서 KUSPA라는 동아리가 주도해서 처음 열렸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여러 지역에서 휴먼라이브러리, 사람도서관, 살아있는 도서관, 숨 쉬는 도서관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개최되고 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특징

휴먼라이브러리의 특징은 무형식, 다양성, 고효율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무형식성 : 주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참가자들과 사람 책 사이에 자유롭게 대화하며, 질문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성 : 휴먼라이브러리는 주제, 공간, 참여자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다. 장소도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컨퍼런스 홀, 학교, 각 대학 캠퍼스, 쇼핑센터, 직장 등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 저예산, 고효율 : 휴먼라이브러리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사람 책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행사나 이벤트를 기획할 때는 각 지역에서 스스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코펜하겐의 경우에는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고 있다.

매우 다양하고 재미있는 휴먼라이브러리의 ‘사람 책’들

휴먼라이브러리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의 주제가 사회 저명인사, 성공한 사람들이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편견일 뿐이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 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들 등 그 어떤 주제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책(Living Book) 목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장애, 안면장애인, 여성소방관, 열혈 축구팬, 장의사, 치유자, 노숙자, 동성애자, 인문주의자, 이민자, 기자, 레즈비언, 무슬림, 경찰관, 정치인, 난민, 엄격한 채식주의자, 회계사, 인류학자, 알코올 중독자,



강연 중인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Ronni Abergel

망명 신청자, 금발 여성, 불교 신자, 보디빌더, 대머리, 양성애자, 맹인, 관료, 암환자, 대마 흡연자, 성직자, 감독, 공산당원, 청각장애인, 치과의사, 당뇨환자, 외교관, 장애인, 무도회 1등 수상자, 환경운동가, 전 조폭, 페미니스트, 장의사, 도박 중독자, 천재 연구자, 그래피티 아티스트, 해커, 중요 범죄 희생자, 힌두교도, 히피족, HIV 보균자, 노숙자, 이맘, 유대인, 재판관, 변호사, 사서, 남성 아기 돌봄이, 남성 간호사, 매니저, 수학자, 시장, 정신장애자, 기상학자, 나이트클럽 댄서, 주차장 직원, 중재자, 매춘 종사 여성, 철학자, 경찰관, 성형외과 의사, 점술인, 랍비, 치안경비원, 가출 아동, 시크교도, 심리학자, 편부, 병약한 사람, 트랜스젠더, 실직자, 마녀, 노동중독자, 동물학자 등 매우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람 책들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휴먼라이브러리 독자(Readers)들의 이용절차

본격적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위해 독자와 사서가 지켜야 할 간단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휴먼라이브러리 카드 작성 : 몇 가지 기본적 내용을 간단하게 적는 카드이다. 이 카드는 가족단위로도 공유가 가능하다.
- 대출기간 : 살아있는 '사람 책'은 한 번에 하나의 책을 대여할 수 있고, 약속한 마감기한 내에 도서관으로 반납되어야 한다. 통상 30~45분 정도이나 사서를 통해 연장 대여도 가능하다.
- 사서의 서비스 : 사서들은 휴먼라이브러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개념을 잘 설명하고 읽고자(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애고자 하는 편견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적절한 '사람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용절차 : 먼저 살아있는 책과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독자들이 자유롭게 책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이 책들은 자발적인 봉사 개념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존중

해야 한다. 책을 대여하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으며, 독자들은 책을 대여했던 그 장소에 잘 반납(데려다 줌)해야 한다.

①코펜하겐에서 휴먼라이브러리의 적용사례 : 이민자문제

휴먼라이브러리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휴먼라이브러리의 출발이 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덴마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는 사회통합 문제로 그 중에서도 이민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코펜하겐 인구 54만 명 중 이민자 비중은 22%로 이민자들의 실업률, 교육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덴마크 한 시민사회 단체에서 덴마크 시민을 대상으로 다른 인종, 다른 종교 집단과 교류 경험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덴마크 시민 10명 중 8명은 해당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덴마크에서도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소통과 교류가 절실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코펜하겐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결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일상과 현실은 로니(Ronni)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민자들을 일상에서 만난다. 채소가게의 아랍 상인, 피자가게의 터키 사람, 모로코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렇지만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궁금한 것들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음식문화에 대해서, 이슬람교도라면 히잡과 같은 복장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보다는 다가서려는 용기가 휴먼라이브러리의 핵심이다.”

②코펜하겐에서 휴먼라이브러리의 적용사례 : 직장, 직업에 대해

직장 근무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동료이다. 휴먼라이브러리는 각 직장에서 휴먼라이

브러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직장생활에서 힘들어 보이는 동료들을 초대해서 “작업 환경이 어떤지?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등 이야기를 들어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각자의 경험들, 즐겁고 민주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직업분야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졌다. 캐나다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한 학생은 다른 병원의 환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를 통해 그 학생은 ‘장차 나는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앞으로 만나게 될 다양한 환자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 성인교육, 평생학습 현장에 시사점

2009년 덴마크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는데 그때 많은 덴마크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로니(Ronni)는 한국에서 휴먼라이브러리 책으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신은 한국 청소년들의 심한 입시경쟁과 성적 압박에 관한 주제를 담은 책을 선정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국 학생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기 전에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럴 때 휴먼라이브러리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에는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일지라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휴먼라이브러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휴먼라이브러리는 한국에서도 ‘리빙 라이브러리’ ‘사람도서관’ 등의 이름으로 대학과 도서관,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휴먼라이브러리는 경력 쌓기(Career Building)와 관련해 청소년들의 직업, 진로 프로그램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그치는 경향이 많아 아쉽다.

휴먼라이브러리는 단순히 다양한 교육방법론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훌륭한 민주시민 학습의 장이자 배움의 플랫폼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세대, 남녀, 지역, 학력, 이념, 직업, 계층, 계급 등 복잡한 갈등이 얹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지수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OECD국가에서도 상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갈등지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만 해도 연간 3백조 원이 넘는다.

이런 갈등의 배경은 상당수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치와 철학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생학습 현장에서도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치와 정신을 담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창립자 로니 에버겔(Ronni Abergel)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 마디 말보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한국 방문단을 위해 특별히 ‘사람 책’ 2명을 초청했다. 연수단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무실 인근의 공원에 자유롭게 둘러앉아 ‘사람 책’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했다.

〈참여 워크숍 ① : 뉴욕 출신 이민자 다니엘 씨 사례〉

다니엘 씨는 아프리카계 미국 뉴욕출신으로 지금은 덴마크 여성과 결혼해서 코펜하겐에 살고 있다. 직업은 요리사다. 휴먼라이브러리 설립자인 로니와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다. 그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로니가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초기멤버로 활동해 왔다.



체험 워크숍을 기다리고 있는 휴먼라이브러리 Book (좌: 다니엘, 우: 벤덴)

“나는 아프리카계 출신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덴마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다양한 이력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물어본다. 덴마크 사람들은 뉴욕사람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뉴욕에서 왔다고 하면 대부분 ‘일을 잘할 거야’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뉴욕과 덴마크 사회의 삶의 방식, 차이에 대해 내가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해준다.”

다니엘 씨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닌 자신의 이력이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 베스트셀러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커피만 사주면 만난다.”라고 할 만큼 ‘사람 책’ 일을 매우 즐기고 있었다. 그 이유는 휴먼라이브러리에 참여하면서 오픈 마인드가 생기게 되었고, 자유롭게 유연한 방식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오히려 본인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여 워크숍 ② : 크리스티아니아에 살고 있는 벤덴 씨 사례〉

벤덴 씨는 최초의 휴먼라이브러리 책으로 가장 긴 시간동안 등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다. 벤덴 씨는 크리스티아니아라는 자유 마약 판매 구역에서 살고 있는데, 코펜하겐에서 크리스티아니아는 미국의 할렘 가와 비슷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벤덴 씨에게 외모나 직업, 경제적 배경, 주거 등 많은 부분에 대해 편견을 가진다.

단적인 예로 벤덴 씨가 정장을 입고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저런 옷을 입고 왔네’ 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또, 학교, 도서관 등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던 사람들도 주거지가 크리스티아니아라고 하면 신기한 듯 많은 질문을 한다.

벤덴 씨는 자신은 록 페스티벌(Rock festival)을 즐기는 사람이고, 크리스티아니아 실업자 대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왜 이곳에서 계속 사는지, 이곳에서 살아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 한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신비롭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휴먼라이브러리 체험, Book과의 대화 - 그룹 ①

2. 덴마크성인교육협회 (Danish Adult Education Association: DAEA)

덴마크 교육제도의 열쇳말은 ‘다양성’

덴마크는 성인인구의 50%가 평생교육에 참여할 만큼 성인들의 지속교육 활동이 활발한 국가이다. 2005년 OECD 14개 회원국 가운데 국제 성인문해수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세대 간 교육격차와 소득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이기도 하다.

덴마크 정부는 교육을 통해 사회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간주하여 교육을 복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의 성인교육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1814년에 7-14세 아동을 위한 의무 교육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했다. 이와는 별도로 1852년에는 ‘자유학교’가 태동했는데, 이는 오늘날 대안학교의 선구적 모델이 되기도 했다. 형식교육에서부터 비형식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형태의 교육제도들은 얼핏 보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이 덴마크의 민주주의를 더욱 탄탄하게 만든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덴마크의 포크하이스쿨

덴마크는 좁은 영토에 (노르웨이의 13%, 스웨덴의 10%에 불과함) 약 550만 인구가 밀집된 농경국가로, 오래전부터 훌륭한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성인교육 제도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왔다. 그 첫 출발은 1844년 비형식 평생학습의 대표기관 ‘포크하이스쿨(Folk High School)’¹⁾이라고 할 수 있다.

포크하이스쿨은 덴마크 자유주의 성인교육의 전통에 기초한, 일반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포크하이스쿨은 작가이자 목사이며 교육자인 그룬트비히²⁾에 의해 만들

1 덴마크의 ‘Folk High School’을 번역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국내 여러 관련 자료에서도 ‘국민고등학교’ ‘민중대학’ ‘시민대학’ ‘성인시민대학’ ‘평민대학’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비형식 교육기관으로 대표되고 있는 포크하이스쿨이 국내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원문 그대로 ‘포크하이스쿨(Folk High School)’로 표기하고자 한다.

2 그룬트비히 목사: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로 불리며 루터교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는 덴마크뿐 아니라 교육 등 북유럽 지역의 중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기존에 존재하던 학습 체계를 대중 전체로 확대하여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확대할 것을 주창했다. 그의 생각은 엘리트로 키우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중 사회에 참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시나 역사뿐 아니라 실용 기술 또한 교육 방식의 핵심 부분으로 여기게 됐다. 당대 국왕 크리스티안 8세의 왕비 카롤리네 아멜리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http://en.wikipedia.org/wiki/Grundtvig> / Allchin, AM (1998), NFS Grundtvig.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Lossky, NO, afterword, London: Darton, Longman & Todd, ISBN 87-7288-656-0. The single most important work on Grundtvig in English.

어졌다. 1884년 당시에는 덴마크가 농경국가였기 때문에 좋은 농부를 양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이 필요했다. 또한 근대국가에 들어서서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산된 ‘시민권’에 대해, 시민으로서 올바른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포크하이스쿨은 형식적으로는 덴마크에서 하나의 교육기관, 또는 하나의 학교에 불과하지만 덴마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포크하이스쿨은 개인적으로는 철학적, 인문적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적으로는 민주적 사회를 경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습득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험이나 자격 제도는 두지 않았다.

최근 포크하이스쿨이 개별화, 다양화 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입학, 무시험제도 등 포크하이스쿨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덴마크에서 시작한 포크하이스쿨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쳐 스칸디나비아,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등으로 확산되었다.

169년 전통의 덴마크 성인교육

1844년 포크하이스쿨의 탄생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덴마크에는 다양한 형태의 형식, 비형식 교육제도를 위한 법과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덴마크의 성인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 성인교육 발전의 역사 중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844년 비형식 평생학습의 시작, 포크하이스쿨
- 1851년 덴마크 왕국, 비형식 교육에 보조금 지원 결정
- 1933년 실업자에 대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 1958년 덴마크 성인교육협회(DAEA)출범,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담당, 형식교육에서 처음으로 기술학교 프로그램 시작
- 1960년 성인직업훈련프로그램 : 현대 덴마크 성인교육의 근간,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 구분이 생겨나는 시기
- 1969년 비형식 성인 교육관련 법 제정 및 여가 교육(Leisure education)시스템
- 1989년 독자적인 성인교육 체제 마련
- 2000년 성인교육 선진화 단계, 주류로 정착

덴마크의 교육 시스템

- 형식 교육 (Formal education) : 6살 때부터 주류 교육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Ph.D 등 대학 교육을 마치게 되는 방식
- 성인 직업교육(Vocational Adult Education) : 직업 교육 역시 기초 수준에서부터 마스터 수준까지 해당. 각 프로그램이 수준별 차이가 있으나 제도 각각의 운영방식 및 수료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
- 일반 성인 교육(General Adult education) : 예비 수준(Preparatory)부터 고등 예비 수준(Higher preparatory)까지 구분. 형식 교육처럼 시험 제도 존재
-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 :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 구성

덴마크의 비형식 성인교육, Folkeoplysning

Folkeoplysning은 교육 자체 및 교육관련 활동을 포괄하는 집단적 개념으로 주로 비형식 성인교육³을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이다. 단어의 뜻은 ‘사람들의 깨달음’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수립된 공식 교육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교육에 있어서 북유럽의 전통적 키워드는 ‘사람(folk)’으로 정치, 문화, 사회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서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즉, Flokeoplysning은 자율시민 양성(정치), 문화적 계몽(문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덴마크의 성인교육 제도로 분류되는 포크하이스쿨 (Folkehojskole: Folk High School)과 대안학교인 Efterskoler (Continuation School) 역시 Folkeoplysning에 해당한다.

① 기숙형 포크하이스쿨 (Folkehojskole: Folk High School)

교육개념으로서 포크하이스쿨(Folkeoplysning)은 19세기의 시대적, 종교적, 사회적 운동 속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덴마크의 대표적인 정신적 지도자이자 시인, 교육자, 성직자로 널리 알려진 그룬트비히(N.F.S Grundtvig, 1783-1872)가 포크하이스쿨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했다.

애초에는 농부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농부들이 덴마크의 국가 정체와 민족, 문화의식

3 덴마크의 의무교육은 1830년부터 실시되었다. 현재의 의무교육 연한은 7세에서 15세에 이르는 9년간으로 의무교육을 마친 뒤 3년제 일반고등학교 또는 2~3년제 직업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을 가지고 신생 민주주의제도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최초의 포크하이스쿨은 1844년 그룬트비히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교육자 크리스텐 콜드(Christen Kold)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짧은 시기에 수적으로 크게 팽창하여 농부, 공장노동자, 어부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농업근대화와 농업기술 등에 관한 강좌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종교, 문학, 철학 등의 인문학 분야와 음악, 미술, 문예 등 예술분야의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오늘날 덴마크 전역에 104개의 포크하이스쿨이 있으며 그 중 103개 학교가 기숙사제(Boarding School)로 운영되고 있다.

포크하이스쿨은 교사의 지도와 일상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 교육 목적으로 삼는다. 즉, 교육의 초점은 개인적 성장과 성숙, 학생 자신의 독립성 강화에 두고 있다. 기존의 제도교육과 달리 매우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시험이 없고 성적을 내지 않으며, 과정을 종료할 때도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민간주도로 설립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사립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교육내용과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100여 개의 각 포크하이스쿨 간에도 운영방식과 교육 과정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창안자인 그룬트비히의 사상에 입각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성격에 치중하는 학교도 있다. 특히, 최근 20~30년간 전문화된 형태의 포크하이스쿨도 등장하여 스포츠, 음악, 드라마 등의 특화된 학교도 설립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방되며 매년 약 6만 명의 덴마크인이 포크하이스쿨에서 장, 단기 과정을 이수하는데, 이는 덴마크 성인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포크하이스쿨 과정 참가자는 대화, 연대, 친목, 동료애를 밑바탕으로 자신의 경험확대와 계발을 통해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다.

포크하이스쿨은 장기과정(5~32주)과 단기과정(1~4주)으로 구분된다. 장기과정 수강학생의 일반 연령은 22~23세이고, 단기과정은 주로 여름에 개설되며 학생 연령층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비울면에서 단기과정이 약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주도로 설립되기 때문에 덴마크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비는 학생들의 납부금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당되며, 일부는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측의 영리사업 수익금을 통해 경비를 지원받기도 한다.

포크하이스쿨 외에도 자유로운 성인교육이라는 유사 맥락에서 학교교육과 지역공동체 및 개인의 계

발을 결합하는 다수의 대안학교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넓은 의미의 ‘Folkeoplysning’로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Efterskoler (Continuation School)의 경우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력과 동료애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며 해당 청소년은 학교에서 공동거주, 공동식사를 하고 수업 외에도 다양한 의무와 공동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② 비기숙형 포크하이스쿨 (Non-residential Folk High School)

주요 성인교육기관의 하나로서 비 기숙형 포크하이스쿨(Non-residential Folk High School)이 있다. 기숙형인 포크하이스쿨과의 차이는 주요 활동분야가 실업자에 초점을 두고 학생개인의 발전과 함께 특정 지식과 기능 배양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에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영역은 일반 분야와 취업에 유익한 특수 분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교과과정은 16주이다. 통계상으로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약 3분의 2가 새로 취업하거나 다른 학업 과정에 들어간다고 한다. 비기숙형 포크하이스쿨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재학 기간 중에 사회보장 및 실업혜택 등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③ 포크하이스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덴마크정부는 포크하이스쿨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1991년 ‘국민교육(Folkeoplysning) 재정 지원 기본법 (Act on the Allocation of Financial Support to Folkeoplysning)’을 입법화했다. 이 법률은 포크하이스쿨 운영에 있어 자유로운 참여, 교과과정 선택과 교사선택의 자유 등 학교운영의 기본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스포츠 또는 경쟁 지향적인 교과과정을 채택할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상기 법률을 통해 일반적 성인대상 교육기관, 성인교육 저녁학교 (Adult Education – evening schools), 스포츠, 청년단체 (Youth Associations), Associative Life, 청소년 동아리 (Youth Clubs) 등을 기본적 재정지원 대상그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모두 민간주도의 사설기관이지만 상당 수준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만 운영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율성(self-governing)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집행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인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각 지자체의 해당 위원회(Committee)는 관내 성인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할당의 세부규범을 확정한다. 정부 기본법에 의거하여 성인교육기관에 제공하는 정부의 재정지원규

모든 연간 10억 크로네(약 2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덴마크성인교육협회(Danish Adult Education Association : DAEA)

덴마크 성인교육협회(이하 DAEA)는 비형식적 성인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1941년 설립된 단체로, 33개의 회원단체들(MO)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단체들은 덴마크의 비형식적인 교육기관과 NGO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평등, 참여민주주의, 자원 활동, 책임의식 5개를 핵심가치로 하는 ‘국민교육(Folkeoplysning)’ 정신을 공동의 가치로 삼고 있다. 즉, 덴마크 성인교육 협회는 현장의 회원기관들을 대표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비형식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비형식 성인교육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협력 등을 촉진하고 있는 덴마크 성인교육의 우산과도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DAEA의 회원단체들(MO)은 모두 공적기관으로 덴마크 전역에 있는 지역지부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DAEA는 약180만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약 1백만 명의 시민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DAEA 자체는 지역지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회원단체들이 지역위원회를 설립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DAEA 운영의 주요 재원은 회원들의 회비와 정부지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 풀(Pool)과 로터리 사업인 ‘Danske Spill’의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33개 회원단체들의 협동과 네트워크, 혁신과 발전을 지원

덴마크 성인교육협회(DAEA)의 활동목표는 33개 회원단체들 간의 상호 협동과 네트워크를 촉진시키고, 회원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DAEA 자체가 실행기관이라기 보다는 33개의 비형식 교육기관들의 대변 기구이자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DAEA 대표가 유럽 성인교육협회 의장으로 선출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DAEA는 회원기관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비형식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전문적, 체계적인 상담과 조언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에 관한 국내외 정보 및 관련 법률 제공

- 국내, 외 펀딩정보 공유
- 각종 컨퍼런스와 세미나 개최
- 대내외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 회원단체들의 이익 대변 및 옹호 활동
- 각종 통계자료와 기록들 제공

최근에 DAEA가 시민교육과 연관 지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민주주의와 시티즌십, 그리고 평생교육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액티브 시티즌 십에 관한 교육 자료와 세미나
- 회원단체들의 자원 활동을 홍보하고 강조
- 건강, 라이프스타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토론하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연결
- 지역위원회 조직을 지원하는 활동
- 평생학습에 관한 동기부여
- 선행학습, 인지과정들 지원
- 비형식교육과 형식교육의 연계
- 다양한 목표의 특수교육
- 유연한 프로그램들의 지원
- 전통적 의미의 진보적 성인교육 지원

덴마크 노동환경과 교육의 상관관계

덴마크의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왜 덴마크에서 일찍부터 성인직업교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덴마크의 전체 인구는 약 550만 명이고, 일자리는 약 30만 개인데 이중 1/3이 공기업, 나머지가 사기업이다. 한 가지 매우 특징적인 점은 기업들 중 92%가 노동자 수 10명 미만의 소기업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회사가 소규모이다 보니 인사과(HR department)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 체제 안에서부터 국내 산업구조에 대한 고려와 인재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또한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낮고 전문직 종사자가 약 60만 명 정도로 인구대비 많은 편이다. 덴마크에서 실업자를 보면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찍부터 덴마크에서는 입법 차원에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덴마크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 이는 덴마크 노동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이직을 하고 싶거나 해고당했다 하더라도 플렉스큐리티(Flexicurity)⁴라고 하는 노동 시장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덴마크 특유의 노동환경은 새로운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추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한국 성인교육, 평생학습 현장에 시사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으로 비교적 단순한 학제에 익숙한 우리의 시선에서 볼 때 덴마크 교육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덴마크 교육제도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다.

한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의 질은 소수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덴마크는 매우 민주적인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국가가 존중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 교육이든 비형식 교육이든, 공립학교든 대안학교든 모든 교육과정 사이사이에 중도탈락하거나, 쉬었다 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일종의 쉼터와도 같은 안전망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학습이라는 것이 특정 시기, 연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과정들이 준비하게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교육기관들 사이에도 한 가지 일관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덴마크에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삶인 반면, 한국에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준비’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그룬트비히의 생각은 덴마크 교육의 기본 정

4 Flexicurity : 플렉스큐리티란 채용 및 해고 등을 관할하는 덴마크 노동 시장의 독특한 체계로 유럽 내에서도 특이한 편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노동 시간, 급여 등이 사측과 협상 가능하다. 또한, 구직자가 직접 회사와 연결해서 서로 원하는 바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신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은 좋은 하인이다. 그러나 첫 머리에 와야 할 것은 삶이다. (중략) 우리의 젊은이로 하여금 지식으로 메마르게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맹수의 발톱으로 세상의 재화를 잡아 뜯어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도록 하자”

덴마크 교육이 학교와 지역 사회 안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 평생 교육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해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덴마크 성인 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관점, 산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직업교육 등을 우리 평생학습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룬트비히(Grundvig)와 로열 코펜하겐(Royal Copenhagen)의 공통점은?

덴마크인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룬트비히와 로열 코펜하겐’ 그림이다. 그룬트비히는 덴마크의 교육을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고, 로열 코펜하겐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명품 도자기다. 둘 다 1783년에 탄생해서 나이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

덴마크 사람들은 컵이 깨지기 쉬운 것처럼, 그룬트비히의 철학도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시대를 초월해 아무리 훌륭한 가치와 정신을 가진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깨져버린 도자기 컵과 같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다양한 선택이 보장되는 덴마크 의무 교육과정

덴마크의 오랜 자유교육운동은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체제를 갖고 있다. 덴마크에는 일반 공립학교와 달리 자유 학교라고 일컫는 다양한 유형의 비정부 교육기관이 있다. 6-14세 아동을 위한 ‘자유학교’가 210개, 14-18세 청소년을 위한 ‘애프터 스쿨’이 약 250개,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크하이스쿨’은 약 100여 개가 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19세기 후반의 민중해방운동가이자 철학자인 그룬트비히(1783-1872)와 그를 추종하였던 실천가 콜(1816-1872)의 교육이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교육이 의무이지, 학교에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덴마크는 200년 전통의 법령에 의거해서 모든 어린이들은 어디서든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덴마크의 모든 어린이가 9년간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87%의 아이들은 공립학교, 10%의 아이들은 자유학교에 다니고, 나머지는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공립학교와 자유학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전학을 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어디서 교육을 받든 법적 교육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가는 것,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덴마크 교육의 전통이다. 특히 자유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80% 이상 받아도 우리와 달리 정부의 교육 정책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자유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이념과 원칙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켜갈 수 있다.

9년의 의무교육 과정을 마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1년 과정이 있는데, 전체 덴마크 학생들이 대개 10학년의 과정을 선택한다. 애프터 스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선택해 갈 수 있는 기숙학교로 1년 과정이다. 포크하이스쿨은 정규 고등학교와 대학으로 이어지는 획일화된 구조 속에서 지친 학생이나 성인들이 가는데 보통 4개월에서 1년 과정이다.

애프터 스쿨이나 포크하이스쿨은 자유학교의 일종으로 학생들이 획일화된 교육 구조 속에서 잠시 벗어나 진정한 자아 발견을 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애프터 스쿨의 경우에는 보통 9-10학년 학생들이 1년간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다양한 교육활동 속에서 민주 사회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포크하이스쿨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애프터 스쿨이나 포크하이스쿨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자신과 사회를 성찰하는 진지한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재정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독일 ‘학습하는 지역들’ – 오펜바흐 시민대학 (Lernen vor Ort – VolkshochschuleOffenbach)

지역단위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독일 학습하는 지역들

독일의 일반교육은 연방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16개 주정부의 독자적 결정과 책임 아래 운영된다.

그래서 각 교과목의 도입 시기, 교과서의 종류 등 모든 제반 교육행정이 주정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심지어 초등학교의 교육기간도 주별로 달라 14개 주에서는 4년,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6년이다. 이렇듯 뿌리 깊은 지방자치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독일의 지역들은 교육정책,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수행의 단위가 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듯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별로 너무 많은 의사결정권자들과 활동가들이 나뉘게 돼, 소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위험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2001년 독일정부는 지역의 교육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학습하는 지역들(Lernende Regionen)’⁵⁾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독일 역사상 최대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⁶⁾

이 프로그램은 독일 연방연구부가 1억 3천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해 2001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진행된 독일 역사상 최대의 평생교육 사업이다. 현재 독일 전역에는 76개의 학습하는 지역들 네트워크가 산재해 있다.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피교육자에게 실제로 유용한 직업능력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개발은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영역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각자의



연수단 단체사진

5 학습하는 지역들 홈 페이지 <http://www.lernende-regionen.info/>

6 ‘독일의 계속교육’ (강현선/베를린자유대학 정치학석사) 일부 내용을 인용

경험을 가지고 네트워킹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고 꼭 필요한 혁신적 교육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목표다. 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는 한국에서도 주요 이슈인데, 네트워크의 구체적 목적과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역 현장에서 학습과 관련한 공급 구조개선
- 각 지역들의 공적, 사적 교육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체계와 교육내용의 투명성, 양질의 교육수준이 보장되도록 함
-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고 꼭 필요한 혁신적 교육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도움
- 기관 간 지식, 정보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개별 기관의 역량 증가

‘학습하는 지역들’ 운영의 특징과 효과

지원받는 예산의 규모가 엄청난 만큼 각 네트워크들이 정부예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단계적으로 감소되도록 설계되었다. 또, 한번 결성된 네트워크는 정부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되어 지역의 평생교육 공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재단이나 사단법인, 또는 공익유한회사(gemeinnützige GmbH)의 형태로 탈바꿈했다.

학습하는 지역들 중 상당지역은 기존의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이나 다른 교육기관이 주도하여 네트워크가 결성된 것인데, 이 또한 획일적이지 않고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지역은 상공회의소, 수공업회의소, 대학 같은 기구가 중심이 되기도 한다.



오펜바흐시민대학 교장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효과라 한다면 지역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 교육 시스템을 따르기보다 지역 노동시장의 필요에 맞춰 교육의 공급을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 노동시장의 관계자와 교육 관계자의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고용촉진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성공한 기업들이 이후에도 평생교육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직업교육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평생교육네트워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매우 유연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교육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펜바흐 학습 네트워크

이번 연수에서 방문한 오펜바흐 학습지역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펜바흐 도시의 특성을 살펴보자. 오펜바흐는 헤센 주⁷에 속해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에 인접해 있는 인구 12만 명의 산업도시다.

오펜바흐는 70~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전통산업이었던 기계, 화학, 가죽 산업이 사양되면서 이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 현재 헤센 주에서 가장 실업자 비율이 높은 도시다. 또, 이민자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오펜바흐에서 이민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나타내주는 통계가 있는데, 오펜바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무려 140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오펜바흐는 도시 발전의 주요 테마를 ‘시민교육’에 두고, 오랫동안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오펜바흐 시민대학이 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오펜바흐 학습 네트워크는 위에서 설명한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기관과 활동가들이 한 틀 안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 정신이 되는 핵심 철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구들이 한자리에 앉아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협력해서 수행한다.
- 지역교육 환경을 위한 책임의식을 고취한다.

7 헤센 주는 독일 남서쪽의 주로서 프랑크푸르트가 대표 도시인 주다. 인구는 6백만 명이 넘는다.

〈오픈바흐 교육발전을 위한 방침〉 규정집 발간

이러한 오픈바흐 학습 네트워크의 가장 큰 효과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교육 욕구와 목적을 어떤 한 교육기관이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학습기관들을 엮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픈바흐에서는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온라인상에서 오픈바흐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뱅크를 만들었는데 현재 약 1만 2천여 개 교육과정들이 등록되어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교육 활동가들과 정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학습과 관련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성인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픈바흐 교육발전을 위한 방침〉이라는 일종의 규정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 규정집은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들이 참여해서 만든 것으로, 시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정당을 초월해서 전체가 협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바흐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공통으로 만들어 간다’는 모토 아래 다양한 형식의 포럼을 열면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합의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의 성과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에 공적 성격의 교육기관들과 사설 성격의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가 과제이기도 하다.

오픈바흐 시민대학

오픈바흐 시민대학은 오픈바흐 시에서 가장 큰 성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1919년 설립되었다. 시민들



오픈바흐시민대학 교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본관 외 시내 곳곳에 20개 지소가 있어 시민들에게 학습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픈바흐 주민들을 위한 교육 자문기구 역할, 오픈바흐 시에서 수행되어야 할 다양한 교육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코디네이션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시민대학의 정규 스태프는 20명으로 우리의 평생교육 기관과 마찬가지로 교육 계획 수립, 강사 초빙, 교육 업무 등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 커리큘럼은 사회교육, 직업교육, 언어교육, 건강관련 교육, 문화교육, 특수교육 총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 언어교육인데 (전체의 55% 차지), 이는 오픈바흐가 이민자들이 많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연간 약 1천여 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약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일 학습하는 지역들 구체적 운영 사례

〈사례 1〉 오픈바흐 유치원, 초등학교 관계자 전문가 회의

독일은 3세 전 유아원, 3~6세는 유치원, 6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그런데 모든 교육기관들의 내용과 형식이 제각기 다르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이 유치원 단계를 넘어 초등학교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3개 과정으로 진로가 분화되면서 겪는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잘 적응하도록 할 것인지, 학교 이외에 어린이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나은 결론을 얻기 위해 200여 명의 교육자들과 보육교사들이 토요일 종일 참여, 함께 지혜를 모으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례 2〉 기술직 여성들 네트워크

슈베비쉬 할(Schwäbisch Hall)과 안스바흐(Ansbach) 지역에서 조직된 ‘기술직 여성들(Frauen in Technikberufe)’이라는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을 통한 과도기 매니지먼트의 사례이다. 이 두 지역은 제조업이 강세인 지역인데 반해, 이 지역의 여성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일을 쉬었다가 일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판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컸다.

이런 수요공급의 불균형 상황에 착안한 ‘기술직 여성들’ 네트워크는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지역의 제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숨은 능력을 개발해 주고, 인생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한 사례이다. 이 네트워크에는 지방 노동청, 교육기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데, 두 지역의 노동청은 중소기업들과 관련 교육기관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을 유도한다.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교육과정의 설계에 참여하며, 직업교육센터나 기술전문대학들은 여성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

한국 성인교육, 평생학습 현장에 시사점

독일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구체적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한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교육 정책, 제도에 있어 중앙정부의 권한 비중이 높고, 지역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이 분화되어 있어, 자칫 교육 정책의 공급과 수요에 있어 중복,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교육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제도와 시스템으로 엉켜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한다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최근 주민의 학습력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거점 평생학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인교육, 평생교육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통합적 시스템이나 네트워킹이 형식적, 일회적 사업으로 그치는 경향이 많다. 또, 평생학습 기관들 간 경쟁이 치열해서 실질적인 정보교류나 네트워킹이 잘 안 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평생교육기관들도 주민들에게 지역과제를 학습 과제화하지 못하고, ‘잘 팔리는’ 프로그램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기에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학습-고용-복지의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지역사회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독일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이 직업 교육에 초점이 맞춰 있기는 하지만, 이런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 사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된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공존, 은퇴 후의 긴 삶에 대한 준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네트워크 사업의 틀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지역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운동으로서의 교육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상(像)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본 시민대학 (Volkshochschule Bonn : VHS Bonn)

독일 평생교육의 중심, 시민대학

독일의 비정규 교육에는 취학 전 교육,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자율청소년센터, 청소년 휴게소, 연방 청소년 협회에 속한 각종 단체), 그리고 성인교육이 포함된다. 시민대학은 독일 평생교육기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공적 교육기관이자 지역평생교육의 중심이다.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의 시초는 1844년 덴마크의 시인이자 역사학자인 N. F. 그룬트비히(Nikolai Frederik Severin Grundtvig)가 설립한 시민대학(folkehøjskole)이다. 그룬트비히는 시민들이 당시에 처음으로 부여받은 민주적 참여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신념에 기초해 경제적 장벽이나 선발시험 제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시민대학을 세웠다. 독일에서 시민대학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시기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대학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육소외계층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독일의 시민대학은 지식습득과 기술연마라는 ‘교육적 과업’과 사회통합과 민주적 가치 함양이라는 ‘사회적 과업’을 두 축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다. 또한, 독일 시민대학은 성인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센터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대학은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공적 의무와 시장주의와 이윤추구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적 원칙들에 바탕을 두고 모든 이들에게 성인교육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2010년 독일시민대학협회(Deutsche Volkshochschul-Verband)에 따르면 독일에는 938개 시민대학(3천72개 지부)이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일반 교육기관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대학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본 시민대학 교장

재정의 약 60%에 해당하는 공적 지원금을 받아서 수강생들이 재정의 약 40%만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주의 지원금은 약 40%이며 연방과 EU차원의 지원금은 약 20%로 최근에는 기업 후원금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민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누구든지 관심 가는 강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 철자법이나 단순한 셈법과 같은 기초교육 강좌부터, 바퀴벌레 퇴치법, 청소하는 법 등의 생활강좌, 외국어강좌, 그리고 하버마스나 데리다의 철학 강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민대학의 3대 특징 ; 개방성, 접근성, 통합성

독일 시민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계층, 수입, 환경, 문화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저렴한 수업료와 다양한 할인제도로 경제적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 누구나 배움이 필요한 삶의 순간에 시민대학의 서비스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큰 특징은 접근성이다. 전국에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각 시민대학들은 시민들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초, 중등학교, 기타 파트너 기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시골지역에는 시민대학이 현지에 있는 유일한 평생교육기관인 경우도 많을 정도로 독일 전역 곳곳에 촘촘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통합성이다. 다수의 외국인 또는 이민자 수강생들과 강사진들이 시민대학의 주요 구성원이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도시 간 자매결연, EU-프로젝트 등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의 다양한 파트너 단체들 -시립 도서관, 시립 박물관, 시립 교향악단 등-과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이 준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극대화 돼서 현재 독일의 시민대학은 특히 기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독일 시민대학의 이런 개방성은 시민들을 (평생)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독일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다시 이런 개방적인 시민대학은 독일사회를 지켜주는 교육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다.

본 시민대학

본(Bonn)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 1999년 베를린으로 행정수도가 이전하기까지 독일 연방 공화국의 수도였다.(1949-1990) 인구는 약 32만 명으로 서비스 산업을 주를 이루고 있다.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많은 행정기관들이 함께 이전하여 현재는 독일 텔레콤(Telekom), T-모바일(Mobile) 및 독일 우체국 본사 정도만 남아있다. 그 밖에 17개의 UN 산 하 기구들, 150개 이상의 국내 및 국제 NGO들이 있다.

독일 전역에 퍼져있는 시민대학은 각 도시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몇몇 시민대학들은 그 지역의 대학에 의해 설립되기도 했는데 본 시민대학도 그 중에 하나다. 시내에 본부를 두고 본 전역에 다양한 지부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법률에는 모든 지방정부가 시민대학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시민대학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연장교육법 (Further Education Act; Weiterbildungsgesetz - WBG)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대학이 독일사회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1904년 설립된 본 시민대학은 성인교육센터이자 시의 교육연구소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본 대학교는 창립 멤버 중 하나인데 설립 이래 지금까지도 본 시민대학과 본 대학교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 시민대학은 시민대학 학장과 학장을 보좌하는 인력 이외에 30여 명의 정규인력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니지먼트 하고 있고, 이외 7백여 명의 프리랜서 교사들이 결합해 있다. 본 시민대학의 학장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교육센터에서 교육가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독일성인교육연구소(DIE)의 학술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간 2천여 개 다양한 강좌 운영

연 2회 출간되는 교육과정 카탈로그에는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총 8개의 분야로 나뉘어 있다. 카탈로그에 소개되어 있는 2013년 하반기 본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을 간략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시민대학 운영 강좌 분류

대분류	소분류	예시 프로그램
정치	시청에 들어온 대학	▪ 재생되는 천연자원
경제 국제	Uni im Rathaus	▪ 자원과 에너지의 혁신적인 활용가능성
	시민대화, 토론프로그램	▪ 무엇이 본Bonn인가? 본Bonn다운 것은 무엇인가?
	Information Visiting	▪ 주요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을 방문프로그램
	국제기구	▪ 유엔에서 일하기 ▪ 국제기구에서 직장구하기
	답사와 관광	▪ 메츠Metz로의 여행: 유럽의 심장 속에 열려있는 역사책
	국제문제	▪ 〈라틴아메리카의 관점〉, 〈아프리카의 관점〉 등 각 국가별 관점에서 본 천연자원문제를 다룬 다수의 강연프로그램 개설
	역사	▪ 한 눈에 보는 세계사
	생활세계-에너지컨설팅	▪ 건축과 난방 속의 천연자원
	생활세계 - 법	▪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
	생활세계-부동산	▪ 설계에서 입주까지
	기타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강좌들
삶을 설계하기 위한 배 움	창조적인 방식으로생생하게 배우기	▪ 노년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하기
	다양성 교육 / 통합	▪ 읽기/쓰기 장애와 계산 장애- 학생들의 권리 ▪ 참여능력박약, 인지장애 학생들의 권리
	심리와 개성 / 자기장점 개발하기	▪ 일상을 내 손 안에 ▪ 내 안의 나쁜 마음과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
	부모와 아이들	▪ 사춘기, 또는 부모를 화나게 하는 시기
	시민으로서의 참여 / 명예직	▪ 법적인 돌봄: 책임이 따르는 과업
	시민의 용기	▪ 모른 채하지 않고 행동하기 ▪ 폭력과 맞서기
외국어	▪ 약 30 여개 국가의 언어를 단계별로 가르치는 강좌개설 ▪ 〈외국어로 요리배우기(Learning by doing)〉, 〈어학연수〉 등	
독일과 통합	▪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 통합과정 :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교육, 독일의 법체계, 문화, 역사 등	

직업교육	▪ 노동시장에 필요한 기능/능력을 개발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 <기업(상점)경영의 기초>, <회계장부 작성하기>, <직장에서의 리더십>, <당신 목소리가 가진 설득의 힘을 발견해 보세요-목소리트레이닝>, <갈등조정하기와 대화주도하기>, <컴퓨터 및 인터넷활용의 기초> 등	
문화와 예술	문화 캘린더	▪ 국내외 문화계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을 소개 ▪ <알베르트 카뮈: 폭동과 단결>, <몽크: 사랑을 향한 절규> 등
	철학	▪ 철학의 역사, 생각하는 즐거움 ▪ 초보자들을 위한 철학
	시민대학 박물관에 가다	▪ 전문가들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박물관 투어
	본Bonn 예술박물관	▪ Art-Talk in plain English
	박물관에서 예술을 만들다	▪ 시민대학과 각 박물관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타	▪ 소묘와 회화, 서예, 유리공예, 도서장정, 종이접기(오리가미), 침구공예, 의상디자인, 조향예술, 보석세공, 사진, 음악(기타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실습교육 프로그램 제공
건강과 영양	강연	▪ 금연트레이닝
	실습	▪ <자기암시프로그램(긴장완화)>, <요가>, <명상>, <기공>, <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 <마사지>, <풍수>, <척추운동>, <아쿠아히트니스>, <노르딕워킹>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
	영양과 요리	▪ 똑똑하게 다이어트하기
연수 프로그램	답사와 연수	▪ 본Bonn의 구석구석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의제로

본 시민대학의 강좌는 여름, 겨울로 1학기, 2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평균 2천여 개 강좌를 개설하고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좌 운영시간도 낮 시간, 저녁코스, 주말코스 등 세분화 되어 있는데, “본 시내에서 월요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저녁 7시까지 일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방문단에게 설명했다.

독일의 시민대학이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본 시민대학 역시 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강좌와 연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유럽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인 유로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유로라는 화폐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유로라는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등 국제정치 현안을 강좌로 구성하는 식이다.

사회통합, 세대통합 과정보다 주요 의제 중 하나인데 특별히 ‘장애우와 함께 살아가기’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기’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한 가정 안에서의 세대 통합’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 본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이민자들 (약 140여 개국)을 위한 독일어 코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학, 예술, 건강관련 과정보다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 시내에서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베토벤 생가와 같은 지역사회 다양한 박물관과 협력,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직접 작품을 만들게 하는 강좌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본 시민대학의 운영재원은 코스 참가자들의 수강료와 주정부 지원금, 본 시의 지원금, 기타 프로젝트 비용 등 크게 4곳에서 충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본 시민대학은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학습 운영 과정에 ISO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국 성인교육, 평생학습 현장에 시사점

한국의 평생교육은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과 2007년 전면 개정 이후 현재까지 92개 학습도시 지정, 7개 광역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 빠른 시간 내에 세계최고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Top-Down방식, 관 주도 중심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나 시민의 의식개혁과 같은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독일 시민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평생교육의 목표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독일이 국가의 정치적 위기를 국민의식개혁 교육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 것과 수동적인 국민들의 자세를 능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시민교육을 시민대학을 통해 이루어 낸 점은 한국 평생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시민대학을 살펴보면 놀라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밀착성’이다. 독일시민대학을 어떤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는 학습,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 시민대학들은 모든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본 시민대학만 하더라도 본 시내에 본부성격의 건물이 있지만, 지역사회 다양한 회관, 학교, 도서관 등 백개 이상의 장소에서 다양한 강좌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시민대학이야말로 시민들의 일상학습 문화와 더불어 독일사회를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또, 하나의 시민대학에서 기획, 운영되고 있는 강좌의 숫자와 다양함, 전문성, 깊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뮌헨시민대학은 연간 약 1만 4천여 개의 강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본 시민대학도 연간 2천 개가 넘는 강좌들이 운영되는데, 일반 취미, 교양 강좌에서부터 정치, 경제, 국제, 사회통합과 일상의 민주주의 과정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한국의 평생교육기관들의 경우 지역적 특성, 기관별 성격, 사회적 의제와 무관하게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에만 치우쳐 있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시민대학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 학습,

‘시민력’을 키우기 위한 민주주의 교육, 정치교육, 지역사회 과제를 학습 과제화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지원이 절실하다.

* 본 시민대학 홈페이지에는 본 시민대학의 미션, 비전을 담은 ‘사명서’가 있는데, 독일 시민대학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싣는다.

〈본 시민대학 사명서〉

기본적으로 본 시청에서의 시민대학교 규정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우리는 시의 평생교육센터로서 일반, 정치, 직업, 건강, 문화 외 언어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 및 직업 오리엔테이션과 사회적 역량, 기술지식도 제공한다.

우리는 공동체의 평안함을 지향하며 국제적, 정치적으로 중립이며, 관용, 다원성, 정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또한, 우리는 지역 간 차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한다. 우리의 목표는 시민들이 다양한 수업을 통해 공동체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력을 키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기회를 잡는 것이다.

시민대학교는 개인, 기관, 협회 및 기업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나이, 문화, 배경, 다양한 삶을 비롯해 사회적 배경, 교육배경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가르친다. 강의는 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품질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품질관리 시스템은 서비스, 상담, 프로그램 계획, 개발, 추가교육 및 주기적인 평가로 나뉜다.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직업정치 시장의 변화에 반응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지역적, 종교적, 국가적, 국제적 파트너들과 작업한다.

우리의 역동적인 활동으로 본시가 문화, 교육, 과학, 그리고 국제적 대화의 메카가 되기를 바란다.

5.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본부 (Friedrich Ebert Stiftung)

독일의 정당재단들⁸

독일의 주요 정당들은 자신의 가치지향을 담은 재단(Stiftung)을 설립하여, 그것과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익지향적인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민주당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의 이름을 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을, 기독교 민주당은 2차 대전 이후 서독의 초대 수상이었던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의 이름을 딴 콘라트 아데나워재단(KAS)을, 그리고 녹색당은 20세기의 유명한 문필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비판적 지성인 하인리히 뵐(Heinrich Boell)의 이름을 딴 하인리히 뵐 재단(Boell)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기사연CSU, 자민당FDP, 좌파정당Linkspartei 등 상대적으로 소수당이지만, 여타 정당들도 모두 유사한 취지와 형태의 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소위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 혹은 ‘근정당재단(Parteinahe Stiftung)’으로 명명되는 이들은 독일 사회의 여론형성과 정책개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로서 기능하고 있다.

〈표2〉 독일의 주요 정당과 정치재단들

재단	설립년도	연계정당	성향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riedrich Ebert Stiftung	1925 (1949 재건립)	사회민주당 SPD	사회민주주의 친노동조합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Friedrich Naumann Stiftung	1958	자유민주당 FDP	자유주의 시장주의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Konrad Adenauer Stiftung	1964	기독교민주당 CDU	기독교 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한스 자이델 재단 Hans Seidel Stiftung	1967	기독교사회당 CSU	기독교 민주주의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 Boell Stiftung	1997 (전신 무지개 재단 연합 1988년립)	녹색당Grüne	친환경, 생태, 인권 양성평등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Rosa Luxemburg Stiftung	1992	좌파연합 Die Linke	자본주의 비판 민주적 사회주의

8 ‘독일의 정책 브레인’을 해부한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박명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일부 내용 인용



에버트재단 사진

독일의 정당재단과 민주시민교육

위에서 열거한 독일의 정치재단들은 모두 정치 아카데미와 같은 부서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민주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정당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분명히 차별화된다. 정당의 경우 교육의 대상이 당원과 당의 상근직원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로 제한된 반면 정치재단은 특정한 당원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치재단이 정당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금지하는 법규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재단의 교육프로그램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재단이 그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정당, 원내교섭단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교육의 내용이 그들이 공유하는 정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재단이 그 교육프로그램을 모든 시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노선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분화되고 개인주의화된 독일의 현대사회에서 정치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본가치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도 정당 정치적으로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재단의 교육프로그램의 재정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정치재단의 교육프로그램이 그들과 정치이념을 공유하는 정당의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국가가 왜 그런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재단들의 교육활동은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거기에는 세미나와 학습 프로젝트와 같은 기존의 교육형태도 포함되지만 역량강화 훈련, 정치자문 그리고 포럼과 같은 장을 마련해 정치와 정책을 전

달하는 것과 같은 활동도 속한다. 이렇게 정치재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활동은 독일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은 실제 한편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지키면서 정당과 조직적으로 독립된 채 정치적 이념만을 공유하는 조직으로서 자신들의 기본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균형을 찾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의 역사와 정체성

FES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재단으로서 1925년에 창립되어 오늘날 약 85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당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노동운동가이자 사회민주주의 정치가인 에버트의 유언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당초 핵심취지는 그의 유산을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가정의 젊은이들의 학비를 위해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창립 시 공식적으로 표방한 모토는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의 이상에 기초하여 모든 사회적인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및 사회적 교육을 촉진하고, 장학금을 통하여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며, 국제적인 상호이해와 협력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1930년대 나치의 탄압을 받아 활동이 금지되었다가 2차 대전 후 1946년에 다시 부활하여 오늘에까지 ‘공익지향성을 갖는 민간문화기구’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에버트 재단의 3대 핵심 과제는 첫째, 사민주의 정치기구인 국민들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치교육 체계 구축, 둘째, 젊은 세대들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셋째, 국제적 의미에서 독일과 이웃나라 간 상호 이해 증진이다.

이런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날 FES는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교육,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학자들에 대한 학술지원,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대화의 장 마련, 세계정의를 목표로 하는 협력 발전 추구, 연구 및 정치적 조언 추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교량 마련 등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의 여느 재단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상으로 공익재단(e.V.)의 성격을 지닌다.

재정과 내부 구성

FES의 재정은 그 절대적인 부분(약 95%)이 연방정부로부터 충당된다. 2007년의 예산은 1억 1700만 유로(약 1천5백억 원)에 달하였고, 그 가운데 1억 1천만 유로가 연방정부의 재정에서 나왔다.

나머지 6백만 유로 가운데 2백50만 유로는 주정부들의 지출로 충당되었고, 3백만 유로는 EU나 DFG(학술진흥재단) 등의 프로젝트에 의한 제3수단이었다.

지출부문을 보면, 이러한 막대한 액수의 예산의 55%인 6천700만 유로는 국제협력사업에 쓰이고, 9백만 유로는 학술연구 및 연구진흥 사업에, 1천4백만 유로는 장학사업, 그리고 2천만 유로는 정치교육 부문에 할애된다.

〈표3〉 독일 정치재단들의 연간 지출액

재단	연간 총지출액 (Euro)	재단	연간 총지출액 (Euro)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riedrich Eber Stiftung	약 1억1,700만	한스 자이델 재단 Hans Seidel Stiftung	약 4,312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Friedrich Naumann Stiftung	약 4,040만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 Boell Stiftung	약 2,450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Konrad Adenauer Stiftung	약 1억 58만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Rosa Luxemburg Stiftung	약 1,192만

FES의 조직을 보면, 기관의 최상층부에 대표부(Vorstand)가 있고, 그 아래에 크게 4개의 대규모 사업본부들이 위치해 있다. 이들은 각각 정치교육, 국제협력, 학술 그리고 행정사무 등의 활동으로 특화되어 있다. 정치교육본부의 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기반을 강화해 가는 쪽으로 모아진다. 국제협력본부는 크게 국제개발협력사업국과 국제다이얼로그국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전자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중동부 유럽 제외)에 설치된 국가별 지부 조직체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신장과 노동운동의 발전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들의 모색을 위해 경주한다. 후자는 서구의 산업사회와 중동부 유럽 지역의 정치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한다. 학술본부는 크게 장학지원사업국, 역사연구센터 그리고 경제사회정책국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경제사회정책국은 노동-사회정책연구실과 경제정책연구실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FES가 국내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핵심적인 정책개혁방안을 구상하고 그와 관련한 외부적인 소통을 담당하는 곳이다.

〈표4〉 에버트재단의 3대 사업본부와 산하 업무기관들

본부	사업국	업무실
정치교육	정치 아카데미	베를린(Berlin) 아카데미 대화 '간문화적 소통', 간행물 〈새로운 사회〉 편집실, 아카데미대화 본(Bonn) 등
	사회정치정보	정치교육, 지역사무소
	다이얼로그 동독	포럼 정치와 사회, 주별 사무소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사업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중근동과 북아프리카, 개발협력정책실, 조정실
	국제다이얼로그	서구 산업사회, 중동부유럽, 국제정치분석실, 학술지 〈국제정치와 사회〉 편집실, 조정실
학술	장학지원사업국	선발, 지원, 연구지원과 후속연락 등
	역사연구센터	사회사와 현대사, 사회민주주의의 아치브, 도서관, 트리어의 칼 마르크스 하우스
	경제사회정책국	노동 및 사회정책, 경제정책

에버트 재단의 정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도전, 문제

최근 급변하게 변화된 국내의 환경과 연관 지어 각 정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 정치교육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6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민교육을 둘러싼 경쟁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성 : 각 정당들의 이념이 바탕이 된 6개의 정치 재단들, 각 정당의 정책 연구 기관들, 시민대학 같은 교육 기관들과 경쟁에서 에버트 재단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쌓고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
-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시간의 문제 : 독일은 연방주마다 노동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휴가를 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갈수록 정치교육을 위해 휴가를 내는 시민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음.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정치교육 세미나가 제공되고 있지만,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도 시간을 내기가 힘든 상황.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에 맞춰 세미나 기간도 일주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등의 변화 발생
- 미디어 환경의 변화 : 기존 전통적 방식의 강의실 중심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 환경으로 변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시민들과의 접촉 방식 변화
-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어젠다, 테마 등장 : 8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나 이민자들의 통합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의제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 학문적 연구과제와 세미나 주제의 변경
- 재정의 문제 : 재단의 운영자금은 공공자금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공동으로 지원받고 있음. 연간 1억 2천

만 유로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 품질과 관련한 경쟁 : 제공되는 상품에 대한 경쟁력,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예) 평가를 위한 세미나 진행, 독립적 기구에 의한 인증절차

에버트 재단의 대표 시민교육 프로그램 소개 1.

: The idea of the Academy for Social Democracy (사회민주주의아카데미)

- 핵심가치

150년 된 사민당의 가치를 어떻게 21세기에 현재화하고, 이 문제를 어떤 대상자들에게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 핵심대상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관련 있는 지도자들, 의회 의장,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활동가, 직원들

- 목적

- 사회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쟁점에 대한 의미 있는 이론적, 실용적 기초를 제공
- 사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 정치적 행동을 취하기 위한 동기부여

- 과정 : 7개의 핵심과제로 구성

- 사회 민주주의의 기초
- 사회 민주주의와 경제
- 사회민주주의와 세계화
- 사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 사회 민주주의와 유럽
- 사회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원론
- 사회 민주주의와 국가, 시민사회

- 운영시간 : 주말 세미나 형태로 진행

- 특징 : 3개의 추동그룹 구성

첫째,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트레이너

둘째, 8개 핵심 테마들에 관한 전문가 그룹

셋째, 이론적 토대를 확실히 제공할 수 있는 대학교수, 학자, 정치인사들

- 형식 : Conference, Forum, Seminars, Textbook, Webpage, Newsletters 등

에버트 재단의 대표 시민교육 프로그램 소개 2. 지역아카데미 사례

- 성격 : 각 지역으로 분산된 시민아카데미 형식, 지방정치인을 위한 경쟁력 강화 세미나
- 대상 : 현재 지방정치에서 활동하고 있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 횟수 : 연간 약 40여회 개최
- 주제 : 청소년 정책, 유럽 전체의 재정 정책 등 모든 분야의 다양한 테마. 연설기법, 모더레이션 트레이닝 등 실무 교육 병행
- 지역정치 후계자 양성 과정
 - 대상 : 정치 참여나 정치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를 발굴, 양성하는 프로그램
 - 횟수 : 4주간 주말 진행 (약 20명 정도 참가)
 - 주제 : 지방정치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스킬
 - 특징 : 1년에 1회 열리는 썸머 아카데미 별도 운영. 정보교환과 네트워킹이 목적

한국 성인교육, 평생학습 현장에 시사점

독일의 시민교육 (Civic Education)은 이미 70년대에 매뉴얼이 제작되어 있는데, 핵심관점은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현재 독일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문제다. 최저 임금이 각 분야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업종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진보성향의 사민당에서는 동일한 최저임금 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수정당인 기민련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한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시민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의견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학습자들이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시민교육을 관통하는 핵심 관점이었다.

민주화가 된지 20여 년이 지난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시민교육 체계의 부재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찰해 볼 때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민주시민이 없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통일된 한반도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잘 해결해 가기 위해서도 민주시민교육 체계의 발전은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시민교육의 평생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과거의 시민교육이 학교와 특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이 시민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인들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이며, 청소년들의 시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다. 청소년은 성인의 민주적 태도와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시민으로 자라나게 된다. 따라서 성인들의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민교육,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The Human Library Organization 홈페이지
- 덴마크성인교육협회(DAEA)소개 브로슈어
- 덴마크 성인교육 국가 보고서 (2011)
- The Danish Education System (현지책자)
- 덴마크 평민대학/ 고병헌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A European Demos: The Nordic adult education tradition – folkeoplysning – faces a challenge’ abstract (Ove Korsgaard, Comparative Education Vol. 28) ‘덴마크 고등공민학교’ (유로저널 EKNews)
- ‘덴마크의 교육’ (두산백과)
- 님은 듯 다른 평생교육지원제도-학습하는 지역들 (강현선/수원시평생학습 동향리포트)
- 교육을 통한 지역 만들기 운동의 과제와 전망 (양병찬/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 오펜바흐에서의 평생교육과 지역프로젝트 ‘학습하는 지역들’, ‘현장학습’ 발표자료
- 독일평생교육 정책동향 (평생교육진흥원)
- 민주주의의 안녕을 위하여-독일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이은정/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 독일 학습하는 지역들 홈페이지 : 학습 커뮤니티 구축 전략
- 원문자료: Volkshochschule Bonn, Programm 2, Halbjahr 2013 (2013 카탈로그)
- 독일사회의 교육 안전망, 시민대학 (강현선/수원시평생학습관 동향리포트)
- 독일시민대학의 평생교육학적 의미 분석 (서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독일의 정책 브레인을 해부한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박명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홈페이지
- Academy Social Democracy : 에버트재단 발표자료

〈별첨1〉

방문기관 정보

휴먼라이브러리	주소	The Human Library Organization, 113 Mimersgade St. – Copenhagen, Denmark
	연락처	Tel : +45 4010 4230
		E-mail : ronni.abergel@humanlibrary.org
	홈페이지	http://humanlibrary.org/index.html
덴마크성인교육협회	주소	Gl.Kongevej 39E, 2.tv. DK-1610
	연락처	Tel : +45 3315 1466
		E-mail : dfs@dfs.dk
	홈페이지	www.dfs.dk
독일학습하는 지역들 -오펜바흐시민대학	주소	Lernen vor Ort, Amt 43, Volkshochschule Offenbach, Berliner Str. 77, 63065 Offenbach
	연락처	Tel : +49 69 8065 3101
		E-mail : flicitas-von.kuechler@offenbach.de
	홈페이지	http://www.offenbach.de/offenbach/themen/bildung-2/volkshochschule-2/
본시민대학	주소	Volkshochschule der Bundesstadt Bonn, Wilhelmstr 34, 53103 Bonn
	연락처	Tel : +49 228 77 5890
		C.p. : +49 151 1176 4378
	홈페이지	www.vhs-bonn.de
에버트재단	주소	Friedrich-Ebert-Stiftung Bonn, Godesberger Allee 149, D-53175 Bonn
	연락처	Tel : +49 (0)228 883-0
		Fax : +49 (0)228 883-9207
	홈페이지	http://www.fes.de/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변혁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click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